



창공에 핀꽃 30일 오후 장성군 장성종합훈련장(상무대) 인근 상공에서 황금박쥐 부대 소속 군인들이 낙하산을 메고 CH-47 치누크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낙하산 강하훈련'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감지기 다시 들고 대대적 음주단속

### 경찰, 메르스 기간 사용 중단...의심 차량만 선별적 측정 음주·사망 사고건수도 늘어...단속 재개 첫날 34명 적발

지난 29일 밤 10시20분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화훼관광단지' 앞 삼거리. 경찰 9명이 2차로 양쪽 차선을 막고 음주단속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해당 구간 진입 차량을 멈춰 세우고 "음주 단속중입니다"며 음주감지기를 들이댔다.

비슷한 시각. 우산동 화훼관광단지에서 5km가량 떨어진 제1전투비행단 후문 앞에서도 경찰의 음주 단속이 이뤄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와 경찰 단속에 적발됐던 심모(42)씨는 "왜 갑자기 음주단속을 하느냐"며 항의하는 듯 하다가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와 운전면허증을 요청하는 경찰에게 "무면허"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주요 음주 단속 장소가 아닌 광산구 평동우체국 앞 사거리도 경찰의 예기치 않은 단속으로 북적였다.

광주 경찰이 29일 대대적 음주 단속에 들어갔다. 정부가 사실상 메르스 종식을 28일 선언한 지 하루만이다. 시민들 사이에서 '경찰이 메르스로 음주단속을 자제하고 있다'는 인식을 떨쳐내려는 듯 교통

인력을 총동원했다. 경찰은 이날 광산구 16개 지점에 122명을 투입했다. 음주 단속을 피해가는 의심 차량을 추적하기 위해 순찰차도 21대를 단속 현장 곳곳에 배치했다. 광산 외에도 광주 전 지역에서 음주 단속이 진행돼 34명의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다. 지난해 하루 평균 적발자(21명)보다 56%나 많다. 경찰 안팎에서는 이날 단속이 메르스 여파로 느슨했던 음주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등 '심리적 제압 효과'를 노린 단속이라고 평가했다.

광주·전남과 경계인 순창 지역에서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난달 5일부터 광주 지역 메르스 관리대상자가 0명이 된 지난 18일까지 음주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무려 104건에 달했다. 3명이 목숨을 잃었고 201명 다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98건·부상 192명)에 견줘 사망자가 크게 늘어났다. 반면, 음주운전 적발자는 5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62명)에 비해 절반 가량 줄었다. 이때문에 느슨한 음주 단속을 틈탄 알체 음주 운전자들의 증가가 사고로 이어진 것

## "U대회때 보여준 교통문화질서 시민 의식으로 자리잡게 할 것"

**최종현 광주지방경찰청장**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앞두고 공을 들인 교통질서 확립 분위기가 확고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치안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최종현(56) 광주지방경찰청장은 29일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한 무질서 단속 행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 청장은 "유니버시아드대회를 계기로 기초질서 확립이 도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시민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선진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시민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후가 교통질서 등 범죄를 줄여주는 문화는 시민들 사이에 확산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는 게 최 청장 판단이다. 최 청장은 이같은 구상에 따라 메르스 종식 선언을 계기로 29일 대대적인 음주단속에 나서는 한편, 불법주·정차 및 신호위반 등 생활 주변의 각종 불법·무질서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광주광산경찰 관계자는 "메르스 여파로 음주감지기 사용 제한 등을 악용한 운전자들로 인해 음주·사망사고가 증가세

를 보였다"면서 "메르스도 종식된 만큼 음주 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 천차만별 '형사사건 성공보수' 법원 판결 사례는? 특정경제범죄 착수금 770만원 무혐의 처분 받으면 5000만원

### 위증 교사 혐의 실형 받자 벌금형 조건 2000만원 약정

A씨는 소송에서 "착수금의 일부(440만원)만 지급하면서 나머지 착수금을 입금하면 변호인 업무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법무법인 임의로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변호인 선임에 관한 위임 약정은 효력을 상실, 보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성공 보수가 소송 난이도(難易度)와 액수, 변호사의 명망·노력, 의뢰인이 얻을 이익에 따라 들쭉날쭉한 만큼 '평균 시장 가격은 얼마'라는 식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에 따른 충격과 여진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과 의뢰인과의 소송을 통해 성공보수 실대를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A씨는 지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B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했다. 착수금은 7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770만원)을 주기로 했고 성공보수금 지급 기준을 ▲공사선급금을 변제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5000만원 ▲공사선급금을 변제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1000만원 등 구체적인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A씨에게 '최상의 결과'가 나왔지만 A씨가 미지급 수임료와 성공보수금을 주지 않자 해당 법무법인은 수임료를 달라며 광주지법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A씨는 지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B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했다. 착수금은 7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770만원)을 주기로 했고 성공보수금 지급 기준을 ▲공사선급금을 변제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5000만원 ▲공사선급금을 변제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 1000만원 등 구체적인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

C씨는 그러나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집행유예에 대한 성공보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성공보수금 반환 소송을 내기도 했다.

재판은 항소심까지 가서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E(55)씨가 형집행유예를 조건으로 F 변호사와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가 성사되지 않았으며 소송을 제기, 지난해 11월 법원을 받은 사건의 경우 착수금 500만원 외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결정 때 1000만원 ▲집행유예 판결 선고는 500만원의 성공보수를 지급기로 한 약정 내용을 엮을 수 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 장수 승마대회 가던 트럭에 불

### 88고속도로 담양 부근... 전남승마협회 선수 말 5마리 숨져

승마 대회에 참가할 말을 태우고 가던 차량에서 불이 나 한 마리에 3000만원에 이르는 말 5마리가 모두 죽었다. 말을 빌려 타고 대회에 나서려던 선수 5명도 경기를 포기해야 했다.

30일 오전 10시50분께 담양군 봉산면 88고속도로 3.4km 지점(광주~담양 방면)에서 장수 방면으로 가던 김모(44)씨의 5t 트럭에 불이 났다. 119가 출동해 20분 만에 불을 꺾지만 적재함에 타고 있던 말 5마리는 모두 불에 타거나 질식사 숨졌다.

이날 화재로 31일 장수승마장에서 예정된 '제32회 대통령기 전국승마대회' 장애물 경기에 참가할 김모(17·고교 1년)군 등 전남승마협회 선수 5명이 대회에 나서지 못하게 됐다. 김 군 등은 김씨가 운영하는 나주 남평

을 보았다"면서 "메르스도 종식된 만큼 음주 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새마을금고 장난감총 강도 잠꼬보니 서울대 출신 전직교사

○...서울 잠원동 새마을금고 강도 피의자가 명문대를 졸업한 뒤 한때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것으로 확인.

○...30일 서울서초경찰에 따르면 강도 피의자 최모(53)씨는 서울대 사범대학 81학번으로 1988년 2월 졸업 후 2년 2개월 동안 강북구의 한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다 1990년 사직했다는 것.

○...아버지의 사업을 도우러 일찍 교직을 떠난 최씨는 본인의 자동차 부품 회사를 차려 운영하다 1999년 부도를 맞은 후부터 토크서비스 기사 생활을 해왔는데, 경찰에서 "빌린 돈 5000만 원을 갚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대 출신인 것과 관련) 말할 기회는 있었지만 차마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다"고 진술. /연합뉴스

### 상무지구 사무실임대

(5층 100평 / 즉시입주가능)

상무지구 가장 **저렴한** 사무실  
금용가도로 이면코너

- 평수 100평 (5층전체사용)
- 현 학원 운영중

**보 2천만 월 130만**

시설 완비  
에어컨 2대 내부깔끔(시비약간있음)

**급매 / 부동산종합 학원 매매**

경매학원 매매  
즉시운영가능  
**월수익 3,000만**

010-6834-4800  
010-6832-9700

### 2층상가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나주 혁신도시 10분!  
나주역 7분!  
영강고교  
영강초교 정문앞

1층6칸 올임대, 2층 주택가능

월수익 200만 매매가 2억9천만

① 북구 우산동 인보화관 상점지건물 7층사우나건물 월수익 950만 매매가 1.5억	⑤ 상무지구 정연오피 3층(30평)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500만
② 수원동 수원지구 4층중 3층 85평 월수익 180만 매매가 3억7천만	⑥ 동구 수기동제일오피(45평) 월수익 60만 매매가 1억1천만
③ 상무지구 수임오피 6층(13평) 월수익 33만 매매가 5천만	⑦ 광양 상아아파트15평 (상가밀집지역) 매매가 4천만
④ 서구 쌍촌동 대문파크 2층(11평) 월수익 32만 매매가 3억800만	⑧ 상무지구 중흥APT(33평) 매매가 2억2천500만

010-6834-4800  
010-6832-9700

### 상업지 상가임대(1층)

(북구 우산동 구호전사거리)

1층 → **상업지역**  
평수 → 70평  
(분할가능 35평)  
(유동인구 많음, 즉시입주)

**최고 상권**

커피숍 식당  
PC방 적합

보증금, 월세 상담

010-6670-9800  
010-7384-7800

### 신축 원룸 임대

(전대 정문2분, 전대후문2분)

**신축원룸 첫입주!**

풀옵션

에어컨,세탁기,침대,책상,TV 등  
(모든 비품 무료 사용가능)

**올 대리석 시공**

7월 30일~8월 30일  
입주자 한하여  
선물 드립니다!

010-7384-7800  
010-6670-9800

### 법정경매

(주)대신경매

수익성 상가 (근린 상가/구분상가)

- 1.서구 치평동(토44.77㎡, 건257.71㎡)감정가 6억1천~최저가 3억4천
- 2.광산구 쌍암동(토99㎡, 건239㎡)감정가 2억5천~최저가 1억1천
- 3.동구 금동동(토19㎡, 건149㎡)감정가 5억1천~최저가 1억2천
- 4.동구 금동동(토18㎡, 건134㎡)감정가 4억7천6백~최저가 1억4천
- 5.서구 치평동 4층중3층(토4.2㎡, 건18.6㎡)감정가 2억9천~최저가 1억1천7백

수익성상가 (근린주택)

- 1.동구 개림동(토59㎡, 건140㎡)감정가 4억2천~최저가 3억
- 2.북구 오치동(토54㎡, 건43㎡)감정가 1억9천~최저가 1억6백
- 3.북구 두암동(토42㎡, 건56㎡)감정가 1억5천~최저가 1억5천

수익성 상가 (근린 시설, 통건물)

- 1.북구 운암동(토66㎡, 건193㎡)감정가 7억2천~최저가 5억
- 2.광양시중동(토222㎡, 건991㎡)감정가 26억7천~최저가 18억7천
- 3.광산구 남산동(토258㎡, 건150㎡)감정가 4억8천~최저가 3억5천
- 4.서구쌍촌동(토170㎡, 건97㎡)감정가 4억~최저가 2억8천
- 5.북구 중흥동(토120㎡, 건30㎡)감정가 13억7천~최저가 7억7천
- 6.동구 수기동(토130㎡, 건320㎡)감정가 1억7천~최저가 7억5천

모텔/주유소

- 1.광산구 쌍암동(숙박시설)토37㎡, 건680㎡)감정가 27억~최저가 19억
- 2.광산구 쌍암동(숙박시설)토154㎡, 건419㎡)감정가 15억~최저가 10억5천
- 3.광산구 월계동(숙박시설)토400㎡, 건800㎡)감정가 34억5천~24억2천
- 4.북구 중흥동(숙박시설)토90㎡, 건377㎡)감정가 11억~4억9천

공장

- 1.전남 장성 북이면(토 2825평, 건614평) 감정가 41억 ~최저가 11억9천

062-382-5500  
010-6832-9700